

자치기구 발전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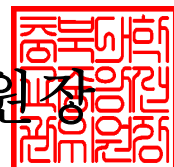
1. 기본 설정은

글꼴 - 함초롬바탕
글자 크기 10p
상대 크기, 장평 - 100%
줄 간격 - 160

으로 하며, 본 양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2. 글자 속성(색, 효과 등)에는 제한이 없다.
3. 각 문항에 표기된 글자 수 제한을 준수하며,
표기되지 않은 문항은 글자 수 제한이 없다.
4. 최대 페이지 수는 10페이지로 제한한다.
5. 위의 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이며,
불이행 시 선거 세칙에 따라 제재에 처한다.

충북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 충북대학교 제 38대 의과대학 길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소개

① 선거운동본부 명칭의 의미

올 학기 초까지 이어졌던 코로나 유행을 끝으로, 이제는 대학생들이 코로나 이전의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마주한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순조롭게 이어가려 합니다.

먼저, '길, Road'라는 말뜻의 의미처럼 드디어 시작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행사들을 학생들이 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한 길을 깔아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쉬워했던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하고 싶었던 활동들에 대한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拮, 일할 길'이라는 한자말의 뜻처럼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의과대학의 학우들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吉, 길할 길'이라는 의미처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계속되었던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함께 앞으로의 학교생활은 운이 좋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선거운동본부가 지향하는 가치관 및 비전

학우들이 하고 싶었던 학교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본 선거운동본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많은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기 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저마다 하고 싶었던 활동, 목표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의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기존의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의과대학의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했던 대학생활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선거운동본부는 '길'이라는 명칭에 맞게,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우들이 걷기 편한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내년 2학기부터 의예과 학생들이 오송캠퍼스에서 처음 생활하게 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선배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및 대학생활에 있어서 마치 비포장도로를 걷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선거운동본부는 학우들이 겪는, 또는 겪을 불편한 요소들을 해소하고 방지하여 모든 학우들이 최대한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선거운동본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4가지 교육목표인 '개척', '진리', '정의', '조화' 중 개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과대학의 특성상 선배들이 지난 길들을 고스란히 따라 걷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표로, 또한 선배로서 이후의 후배들이 능동적으로 길을 개척해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분석

① 최근 의과대학 학생회 사업 분석

2022년 진 학생회는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활동이나 행사들을 하지 못했던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함에 따라 학생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은 학교에서의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과와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과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려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진 학생회가 진행한 대표적인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의-간 연합 체육대회
- 2) 학생총회
- 3) 충청지역 의과대학 E sports 대회
- 4) 예본 엠티
- 5) 동아리 총회
- 6) 야식마차
- 7) TF team 운영

1) 의-간 연합 체육대회

코로나 이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가 함께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체육대회는 팀 단위로서 진행되지 않고 개인별로 부스를 체험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선후배 학생들끼리 교류하기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 학생회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팀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하였고, 각 종목마다 다른 사람들이 출전하게끔 하고 열심히 응원하게 하여 학생들끼리의 교류를 장려하고, 체육대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끝난 이후에도 같은 조원들끼리 뒤틀이를 가지고, 체육대회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등 부족했던 기존 방식의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2) 학생총회

진 학생회 이전의 학생회에서는 다른 학년들의 의견을 듣고 학우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과정을 각 학년의 개인적 친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진 학생회는 학년별 의견수렴을 통해 각 학년별 대표자가 참가의사를 밝히는 경우 학생총회를 진행하여 학기 중에 전 학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취합해 사업 진행에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3) 충청지역 의과대학 E sports 대회

충청지역의 의과대학들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실제 대면하여 진행해야 하는 구기 종목들은 진행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E sports 대회를 타 의과대학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응원하며 학생들 간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충청지역 의과대학의 학생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며 여러 의과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4) 예본 엠티

의과대학의 특성상 의학과와 의예과가 분리되어 학사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두 학과 간의 교류는 동아리 활동에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해 의예과와 의학과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예본 엠티를 진행하여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본 엠티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예과와 본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학생회는 2년간 진행되지 못했던 예본 엠티를 다시 기획하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서로가 더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예본 엠티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5) 동아리 총회

의과대학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들이 있는 만큼,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간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 학생회는 동아리 간의 유기적인 일정 조율을 위한 동아리 총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동아리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야식마차

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청주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비대면 기간 동안의 야식마차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간식을 수령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간식들이 다양해진 만큼 진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를 조사하고 여러 종류의 간식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간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TF team 모집

의과대학 학생회의 특성상 행사를 진행할 때 오로지 학생회 주관으로만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의예과 학생들의 선호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진 학생회에서는 행사를 진행할 때 학년별로 TFT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각 학년별 의견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이 학년 구분 없이 함께 행사를

꾸려 진행하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으로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3.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발전계획

① 대내외 상황 분석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으로 모든 학년의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던 동아리 활동이나 의과대학 내의 행사들이 하나둘씩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상황에서 그동안 행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던 만큼,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의약간이 함께 진행했던 E sports 대회를 확대하여 충청도 지역 의과대학 간의 대회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해졌고 그에 따라 대회를 즐길 수 있는 학우들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E sports 대회는 충청도 지역의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모여 진행한 첫 번째 행사였던 만큼 타 학교와의 교류가 부족했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의예과의 오송 캠퍼스로의 이전이 내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행사 및 학사 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여러 전국 차원의 운동 대회들이 진행되며 다른 의과대학들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된 동아리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동아리들의 활동이 한 번에 증가하며 동아리 간 조율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체육대회가 개편됨에 따라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원활해진 만큼, 이후의 여러 활동들도 함께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여러 단과대학이 연합하여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고 타과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의과대학만의 축제가 아니었던 만큼 학우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 간의 교류의 필요를 느끼며 협의를 통해 2022년 medvet 일일호프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합동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전반적인 분석에 따른 발전목표 및 계획

1) 짝선배-후배 간 연결 프로그램 확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간의 학교생활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지난 학생회에서는 선후배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며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 선거운동본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의예과 학생들끼리 진행하던 짝선후배 제도를 의학과까지 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예과 입학뿐 아니라 본과 진급 시 느낄 수 있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최

대한 덜어주려 노력하겠습니다. 최대 2회에 한해 보고서를 제출하여 멘토-멘티 활동을 확인받을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짝선후배 제도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2) 청주-오송 캠퍼스 간 교류

2023년도에 오송 캠퍼스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캠퍼스와의 거리,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며 선후배와의 교류 또한 차질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선거운동본부는 본교와의 소통 단절을 막기 위해 ‘오작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학기에는 의예과 학우들이 청주 캠퍼스를, 2학기에는 의학과 학우들이 오송 캠퍼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캠퍼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입생 OT는 조별로 충북대학교 중문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겼다면,明年에는 오송 캠퍼스에서 이를 진행하여 캠퍼스간의 교류를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오송 캠퍼스로의 이전에 관한 명확한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선거운동본부가 직접 나서서 오송 캠퍼스에 관한 새로운 일정 및 소식들을 의예과 학생들에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공지하겠습니다.

3) 충북의대&충남의대 간 북남전 추진

대외적으로는 충북의대와 충남의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이전에 진행되던 충북대학교 의약간 E sports 대회를 확대해 충청지역 의과대학 간의 대회를 진행하였지만, 지리적 한계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E sports 종목밖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선거운동본부는 충청지역의 모든 의과대학이 함께하는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충남의대와의 교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단위의 운동대회들이 다시 시작된 만큼, E sports뿐 아니라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구기종목을 추가한 북남전을 추진하여 진행한다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뿐 아니라 충남의대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4) 의과대학 연합축제 진행

올해 진행하였던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 연합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이러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연합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진행했던 단과대학 연합 축제는 규모 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으나,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축제와 차별성이 떨어졌으며 의과대학 내 구성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선거운동본부는 의과대학 연합 체육대회에 이은 연합축제 또한 진행하여 의과대학의 구성원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5)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

이전 학생회에서는 학우-학생회 간 소통을 위해 학생총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사업 진행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선거운동본부도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바,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학생 총회를 최대한 자유롭게 진행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항시 운영하며 익명성을 보장하여 건의 사항 제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년별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개됨에 동의합니다.

2022년

11 월

14 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8대 길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 후보 홍형표

홍형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8대 길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 후보 박성현

박성현

충북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